강경정책·자유공간-분리된 해방공간

학술특집

해방후 미국의 점령정책 비교연구

Ⅰ. 들어가는 말

80년대에 접어들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 현대사 특히 해방 3년 또는 해방 8년사연구는 우리 역사인식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전환을 의미한다. 정치권력이 분단구조에 사활을 걸고 식민잔재가 여전히 역사의 장으로 격랑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배적이었던 체험적 반공론에서 벗어나 70년 중반 이후 공개되기 시작한 미국의 비밀문서들을 토대로 양산되었던 현대사연구는 80년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정치적 분위기와 맞물려 생경한만큼 혁명적이었다. 90년대는 냉전구조의 종식으로 외적인 분단유지구조가 변화되었고, 30여년만의 첫 민간정부의 출범으로 분단을 유일한 정치적 정통성으로 내세울 정치적 필요성이 희박해졌다는 점에서 현대를 두개의 분열된 '역사'로 인고 있는 우리에게 시급한 역사의 아노미극복을 요구하고 있다. 내외의 이같은 상황변화는 한반도의 통일을 민족의 자주적 실천전략으로 논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점에서 정확한 분단상황의 재구성은 올바른 재통일을 위한 논리적 현실적 전제임이 분명하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쓴다면, 새로운 연구들의 일반적인 문제들은 '해방 3년 또는 8년간 미점령군은 기존의 친일세력을 안존시키면서 남한에 친미 자본주의체제를 이입시키려고 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세력과 직접 충돌하여 냉전이 연전으로 전화되었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때 점령하에서의 외부의 영향력에 비중을 두게 되면 이른바 '분단외인론'으로, 계급간의 대립이 되었든, 민족세력대 반민족세력간의 대결이 되었든간에 해방공간에서의 민족의 주체성에 중점을 둔 논지를 '분단내인론'으로 정식화되었다. 이 글은 비록 이같은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확한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동일한 점령상황하에 놓여져 있었던 독일과 일본을 거칠게나마 비교해 고자 한다. 비교연구는 자연과학에서의 실험이나 사회과학에서의 실증적 연구가 불가능한 역사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변수통제방법으로 볼 수 있다. 상황의 재현이 불가능한 역사에서는 비교분석의 틀을 통해 비로소 실험실과 유사한 인위적 변수통제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Ⅱ. 독일과 일본에서의 미국의 점령정책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2년 부터 미국은 전후 세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작업을 시작했으나 그 구체적 윤곽은 유럽에서의 종전을 눈앞에 둔 1944년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드러난다. 이른바 Morgenthau-계획이라 불리우는 미국의 독일점령계획은 반인류적 전쟁에 대해 독일국민 전부에게 '집단책임'을 지우고 추후 수십년동안 독일을 제 및 당시 일본정부의 존속이란 목시적 합의하에 점령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는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인 8월 초까지 작성된 미국의 모든 점령계획의 전면적 수정을 의미했으며 이로 인해 점령당국에 의한 '간접통치'라는 독특한 점령형태를 낳게 하였다. 다시말해 독일과 달리 일본에서는 군정이 실시되지 않고 형식상으로 '포츠담선언'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정부가 개혁프로그램을 입안 실시하면 연합국 총사령부가 이를 감독하는 방식을 취했다.

Ⅲ. 공존하는 두개의 해방공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살펴본 양국에서의 점령정책을 통해 미국의 전후 자유주의적 개혁들이 상당부분 군사전략적 의미를 갖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말해 미국의 점령정책은 정령초기 미국의 군사적 점령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그 사회의 반민주적 세력이 동일하였을 때에 한하여 개혁적이고 민주적이었다. 외부에 새로운 적이 등장한 냉전을 통해 이 두 패점령국가는 여제의 적을 오늘의 이해 동반자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미군에 의해 점령당한 남한의 경우 해방은 두 과점령국가와는 대조적으로 서로다른 두개의 경쟁상부에서 공간은 독일에서의 '강성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쟁과 인종은 독일 내부에서 점령군을 맞이 했던 반파시즘 전선처럼 합법성을 인정 받지 못했고, 망명세력 역시 개별적인 군정참여자를 제외하고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연합의 경우 조선어멘체의 강제폐간조치로 자연적 영시(冷時)에 놓여져 있었으며, 매일신보와 경성방송국을 접수하여 독일의 '포고지'와 같은 직할매체로 활용하였다. 반면 아래로부터의 공간은 패전 이후의 '일본의 사회분위기'와 흡사하다. 노조활동을 비롯 일체의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었던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점령초부터 간접점령의 결과 시민적 자유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전시하에 금지되었던 정치적 자유가 이른바 45년 10월 5일의 '권리장전'조치로 건격적으로 주어지게 되자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자발적 민주화운동이 밑으로 부터 일어나게 되었다. 초기 일본정부를 상대로 벌여졌던 이같은 국민개혁운동은 개혁의 부진등의 책임을 일본정부에서 그 배후에 있던 미점령당국에게로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백아더사령부는 일본정부와 함께 점령군 안보의 차원에서 47년이후 격극적인 반노동운동조처를 반공주의의 이름하에 펼치기 시작했다. 해방이 식민세력과의 자동적 단절을 의미하지 않았던 한반도에서는 식민상황청산과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이란 역사적 소명을 이해하지 못한 미군정이 점령군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체의 민족주의적 활동을 좌익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자주를 방해하는 미국은 해방공간의 민족세력에게는 일본을 숭계한 새로운 식민지배국으로 밖에 인식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서로 다른 이해관계속에 공존했던 상하의 해방공간은 점령군의 안전확보와 식민유제개혁이라는 두가지 모순된 이해관계로 인해 친일세력을 축으로 직접적인 대결의 상황으로 치달게 되었다. 전반국이자 식민종주국에게도 실시가 보류된 군정을 겪고, 냉전을 열전으로 치러야 했던 한반도에서의 분리된 상하의 해방공간은 이적에서 오늘날 남북으로 분단된 지리적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 태 완
(본교 강사·신문방송학)

일본·독일-탈군국·탈나찌와 의식개혁에 중점
냉전 계기로 점령정책 군정유지로 전환

미개한 농업국가로 전락시킬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강경정책은 독일의 패망을 눈앞에 둔 1945년 4월 26일 발효되고 초기점령기간동안 그대로 시행되었던 '연합정보본부 지령 1067호'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언론과 관련한 미국의 제획은 '연합국총사령부 심리전사단'의 같은 시기 '독일정보서비스통제를 위한 편람'에 구체화되어 있다. 흔히 3단계 계획으로 알려진 편람은 1)모든 독일언론의 전면적 금지 2)점령군이 직접 '포고지'발행 3)연합국 통제하에 독일인 '허가신문'발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지상전을 통해 점령된 독일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5월 7일 독일군 항복 이후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독일은 전후 이른바 '영시(冷時)'를 맞게 되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같은 실험은 연합국 통제위원회 산하 각 분할 점령지별로(미국점령지의 경우 대독일 군정사무국) 실시되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적어도 계획상으로는 이와 유사한 강도의 점령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즉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군국주의 패지, 천황제를 포함한 일본정부의 민주화 등이 당면 전략적 목표였으며 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고지 발행단계를 제외한 2단계 계획이 입안되어 있었다. 그러나 핵폭탄의 투여와 소련의 참전 그리고 1931년 만주침략이래 10여년 이상을 끌어온 전쟁상황으로 인한 천황제 자체의 위기감 등이 당초 45년 11월로 예상되었던 일본의 항복을 앞당겼다. 이로써 일본은 오끼나와를 제외한 본토에서 지상전 한번 벌이지 않고 연합국과의 협상을 통해 천황

이같은 점령기구와 상황의 들에서 양국에서 펼친 미국의 점령정책은 크게 탈나찌즘 또는 탈군국주의화 정책과 양국민 재교육정책으로 나눈다. 두 사회를 민주적으로 개혁시키기 위해 취해진 이들 정책은 전자가 이같은 목적을 위한 부정적-억압적 조치인 반면 후자는 국민의 의식개혁을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탈나찌즘 또는 탈군국주의 정책은 군사적 잠재력의 완전한 해체, 행정기구의 분권화, 독점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경제구조의 변화 및 모든 나찌즘적인 혹은 군국주의적인 정치 사회조직의 소탕 및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회 제반 지도층의 정화등으로 구체화 되었다. 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이같은 전후 개혁프로그램은 독일의 경우 모든 나찌즘의 지배기구들이 붕괴되고 난 후 주로 인적 정화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는데 전체 3백50만명의 조사대상중 1천1백60명이 주범으로, 2만 3천명과 15만명이 각각 책임자와 부책임자격으로, 1백만명이 등조자로 판정 되어,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직업금지등의 조처를 받았다. 일본의 경우 이같은 전후개혁은 간접통치 원칙에 따라 모두 일본정부의 손으로 취해졌다. 이는 애초부터 설저한 탈군국주의 실현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는 것으로 인적 정화의 경우 약 21만명만 퇴직 혹은 직업규지조처가 내려졌으며, 이중 약 80%는 군관련 인사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전전(戰前)의 주요 정치, 사회, 경제 및 언론조직들이 대다수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개별적인 책임만 문제시하여 이같은 조처가 일본사회의 민주적 구조모의 개편이라는 당면 목표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나아가 미국은 이같은 인적 정화조처가 그 어떤 처벌의 성격을 띤다기 보다는 점령당국의 안보와 관련시켜 군정이나 군점령당국의 존위에 위협이 될 세력에 대한 예방적 조처로 그 의미를 제한함으로써 냉전의 심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세력인 공산주의자와 그 동조자에 대한 제2의 제한적 조치, 즉 이른바 '빨갱이 정화(Red-Purge)'가 뒤따르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사회의 위험천만한 해커

컴퓨터에 홍미를 갖고 불법으로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실수 또는 고의로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해커라 정의하는데, 60년대에는 MIT대학의 학생들이 개발된 시스템의 버그(bug)를 찾아내기 위해 시스템에 침투한 사례가 있고 70년에는 퍼스컴을 이용하여 다른 컴퓨터에 침입하거나 장거리 통신회선을 무료로 이용한 사례가 있다. 또한 80년대에는 해커들이 컴퓨터 시스템의 손상, 비밀자료의 복사 및 입수, 금전의 횡령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국의 주요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 침입하거나 국제회선을 이용하여 타국가의 첨단과학 기술정보나 국가안보관련 정보를 도용하기 시작하였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해커방식은 점점 고도화 되어 가는데 허위로 데이터의 부정조작, 도청, 파괴, 편승 및 시라미수법(고객의 구좌에서 내부 범죄자의 구좌로 작은 금액을 조금씩 옮기는 수법), 시행착오(사용자의 성향, 이름, 대상기원, 생년월일, 주소등을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시별한다), 스파이, 트랩도어(시스템의 보안을 보장하는 보호기능을 bypass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삽입하는 특수기법으로 시스템의 OS나 대형 프로그램 개발시에 주로 삽입한다), 트로이 목마와 시한폭탄(정상적인 프로그램에 특수 명령문을 삽입시켜 표면적으로는 정당하나 실제로는 불법행위를 위한 특수 명령문을 포함시키는 방법, 정해진 시간이나 로직에 의해 시한폭탄을 장치한 사람의 의도대로 컴퓨터 시스템을 중단 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

(표 1) 국가 주요 컴퓨터 침입 사례

연도	피해지	내 용	행 위 자
83년	뉴욕 New Mexico의 Los Alamos 핵연구소	미국의 정보센터인 TELEnet망을 통하여 연구소의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해 중요 정보를 복사 또는 변경시킴	미국 캘리포니아 고교생 12세 소년
83년	연방의 조폭해 연구센터	연구원자격 제한자 불법한 연구소의 컴퓨터에 사주의 배려로 콘퓨터명의 학생 20명이 국제정보회선을 통해 불법침입하여 정보에 상공해없는 메시지를 남김	시카고의 학생들
83년	미국의 국방청	부정의 정보수집이 목적임을 이용하여 APANet은 물론에 미 국방성의 비밀정보로 rapid입수, 이 사건은 ARPANet은 MILNet와 R&D Net로 분할시켰음	뒤셀돌 청소년
87년	미국의 NASA	NASA의 SPANet에 사적의 해커 관집이 트로이목마 수법을 이용하여 침입한 다음 사스템의 여러 부분을 고장내었다	시카고 해커관집

이렇게 보다 다양하고 조직적인 해커들의 침입으로 정보를 도용한 사례는 〈표1〉과같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해커들의 침입에 의한 정보의 도용은 점점 고도화 지능화 되어 가고 있고, 그에 대한 보안 기법 및 대책들도 강구되어야 한다. 최근의 보안대책으로는 컴퓨터센타와 원거리에 위치한 관련 컴퓨터 실비에 통제장치나 물리적 기구들을 설치하여 예상되는 재해, 인위적인 위협요인들로 부터 하드웨어나 데이타를 보호하거나 무자별 자료검새, 의도적 자료절취, 의도적 자료파괴등의 위협요인을 파악하여 자료에 대한 접근, 자료 이동, 추측, 암호화를 통한 통제등을 실시해야 하며, 내부인 또는 외부인의 악의적인 행동이나 실수로부터 정보시스템이나 자료가 파기, 수정, 유용되는 것을 적절한 방법이나 제도를 통해 사전에 막는 인사관리와 인적보안의 연계, 전산요원 사이의 의무와 책임구분, 업무의 순환, 다단계인적 감시 체계, 예방적 차원의 인적보안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되는 자료가 유출, 변형, 파괴되는 경우와 고의적인 행위나 실수로 통신망이 마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국내인터네트 보안센터 구축 및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하며, 보안 전자우편 개발 및 서비스보안 인터네트 프로토콜의 개발, 보안 SNMP, CAT, TS의 개발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 동 호
(공대교수·전산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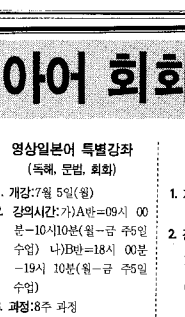
새정부의 좌충우돌

늙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은 구절서 타파를 위해 먼둑이는 칼날을 휘두르기 마련이다. 정권초기에 모든 세인들의 관심은 그 칼날의 공격목표가 되는 이들에게 돌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김영삼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정권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사정의 칼날'은 신들린 듯이 이곳 저곳을 헤집고 다닌다. 날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지난 날의 실력자들을 쳐다보면서 국민들은 놀라움과 짜릿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여기다 군인사 등 이른바 YS의 깜짝쇼까지 가미되어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 재미를 톡톡히 줄 길 수 있었다. 그러나 저금은 사정의 칼춤을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권초기의 이른바 사정의 칼날은 그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여러가지 행위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정권의 본질은 정권의 비리를 어떻게 파헤치고 처벌하느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토대위에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한 것이냐에 있다. 즉, 구시대의 불의들 타파할 올곧은 칼을 휘두르는 정권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국가와 민족의 열망을 실현한 수 있는 보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가 칼과 보습을 올바로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현 정권은 그야말로 지난 5,6공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되뇌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황종리의 12.12발언이나, 김종필 민자당 대표의 5.16발언등은 아직까지도 현 정권과 군사정권이 그 뿌리는 하나로 두고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또한 문민정부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군사정권의 해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현정부는 이러한 군사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작업보다는 상징적인 해체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즉, 12.12와 5.18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의 의지는 보이지 않으면서, 쇠일치처벌등의 여론에 힘입어 YS의 취약지인 군대의 몇몇 군인들만을 전역시키고 있다. 현 정부가 군사정부와는 그 뿌리를 달리하는 '문민정부'인가 하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다.

김영삼정권이 출범한지 1백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우리들은 YS의 좌충우돌식의 칼춤에만 정신이 팔려서는 안될 때이다. 그보다는 지금까지의 한국현대사를 얼룩지게한 지난날의 군사정권의 칼날과 지금 현 정부의 칼날의 본질이 다른 것인가, 아니면 같은 군사독재든 문민독재는 득제라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 바로 보아야 할 때다.

전문강사와 함께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회화 특별강좌를…

영어회화 특별강좌

1. 개 강:7월 5일(월)
2. 강의시간:
가)초급=
A반 08시30분~09시30분 (월~금 주5일 수업)
B반 12시00분~13시00분 (월~금 주5일 수업)
C반 16시40분~17시40분 (월~금 주5일 수업)
D반 17시50분~18시50분 (월~금 주5일 수업)
나)중급Ⅰ=
A반 09시40분~10시40분 (월~금 주5일 수업)
B반 19시00분~20시00분 (월~금 주5일 수업)
다)중급Ⅱ=
C반 10시50분~11시50분 (월~금 주5일 수업)
3. 과정:초급, 중급, 각8주과정
4. 모집인원:각반15명 (선착순마감)
5. 강사:STEVEN A. COLLYER(한국에서 회화강의 7년의 경력을 통한 고강도 훈련, 전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건국대학교 등에서 회화 강의,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전임강사)
6. 수 강 료:
각 과정 8주 130,000원

A.F.K.N. 청취 특강

1. 개강:년중 계속 강의중 (수시접수 수강가능)
2. 강의시간:
가)아침반=08:30~10:40 (월·화·목·금 주4일 강의)
(아침반은 8주간만 강의하며 20명 미달시는 폐강함. 수강료는 8주에 60,000원)
나)오후반=17:10~18:20. (월·화·목·금 주4일 강의)
다)저녁반=18:30~19:40 (월·화·목·금 주4일 강의)
3. 강사:강홍식선생(한국외국어대학교 졸, 현 World News방송 청취위주 청취비결 Series Columnist,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A.F.K.N. 청취전임강사)
4. 강의내용:Advanced Course:완벽 청취력의 Final Course, 결정적인 발음원리 33가지 요약 정리, 전날 A.P. News, Basic훈련방법인 Blank Fill-in외에 가장 강도 높은 Full Dictation및 Summary훈련, Topic별 어휘정리 및 청취비결 수첩 Print제공
5. 수강대상자:최고급 수준의 청취, 회화, 어휘 독해력을 원하시는 분, Listening과 발음으로 고민하시는 분
6. 수강료:1개월 단위 35,000원

영어청취 특별강좌 (TOEFL L/C, TOEIC L/C)

1. 개 강:7월 5일(월)
2. 강의시간:A반(속달과정)=09시00분~10시10분(월~금 주5일수업) B반(속달과정)=10시30분~11시30분(월~금 주5일 수업) C반(속달과정)=13시00분~14시10분(월~금 주5일 수업) D반(완성과정)=16시40분~17시50분(월~금 주5일 수업) E반(완성과정)=08시00분~19시10분(월~금 주5일 수업)
3. 과 정:8주과정
4. 모집인원:각반 40명(선착순 마감)
5. 강 사:박종춘조선생(외대대학원 석사, 전 시사영어사 TOEIC강사,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영어청취 전임강사)
6. 강의내용:TOEFL·TOEIC L/C에 가장 필요한 발음원리 60가지 정리, L/C및 회화에 꼭 필요한 2word verbs정리, 어휘·속담·구문·복문·복잡한 문장의 단계별 청취훈련
7. 강의대상:기업체 취업대상자, 유학준비생, 영어청취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
8. 교 재:L/C practice script(당일배부), TOEFL·TOEIC L/C기출문제, V.O.A. News TOEFL·TOEIC ›L/C 고득점 전략 습득

영작문 특별강좌 (취업준비,유학준비,국가고시준비,대학원준비)

1. 개 강:7월 5일(월)
2. 강의시간:10시00분~11시30분(월,수,금 주3일 하루90분씩 수업)
3. 강 점:8주 과정
4. 모집인원:각반 20명(선착순 마감)
5. 강 사:이영옥선생(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학 박사, 외교안보연구원 강사,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전임강사)
6. 강의내용:대기업 취업 대비, 유학준비,대학원 진학준비,국가고시 준비
7. 강의내용:8주 80,000원

아카데미 TOEFL (TOEFL시험, 유학준비, 국가고시 준비)

1. 개강:7월 5일(월)
2. 강의시간:가)A반=08시 30분~09시 30분(월~금 주5일 수업) 나)B반=09시 40분~10시 40분(월~금 주5일 수업)
3. 과정:8주 과정
4. 모집인원:각반 50명(선착순 마감)
5. 강사:이삼출선생(경희대학교 대학원 영문학 석사, 전 현대시사외국어학원 강사,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전임강사)
6. 강의내용:TOEFL 시험 대비, 유학준비, 국가고시 준비, 취업준비, 대학원진학 준비
7. 수강료:8주 40,000원

영상일본어 특별강좌 (독해, 문법, 회화)

1. 개강:7월 5일(월)
2. 강의시간:가)A반=09시 00분~10시10분(월~금 주5일 수업) 나)B반=18시 00분~19시 10분(월~금 주5일 수업)
3. 과정:8주 과정
4. 모집인원:각반 40명(선착순 마감)
5. 강사:송금순 선생(일본 동지사대학 일문과 졸업, 현대건설 사원연수 일본어 강사, 전 시사 통역 학원 강사,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일본어 전임강사)
6. 강의내용:일본어 문법 및 짧지만 발음 훈련과 기초 회화 완성, Lab을 이용한 듣기 훈련(정확한 동경 발음), 문법의 실용회화로서의 효과적인 응용 훈련
7. 수강료:8주 60,000원

러시아어 특별강좌

1. 개 강:7월 5일(월)
2. 강의시간:
10시50분~11시50분 (월~금 주5일 수업)
3. 과 정:8주 과정
4. 모집인원:20명(선착순 마감)
5. 강 사:OLEG KIM 선생 (재 러시아 교포, 러시아 청년대학 졸업)
6. 강의내용:
정확한 발음, 문법, 독해력 회화능력을 배양
7. 수 강 료:8주 60,000원

중국어 특별강좌

1. 개 강:7월 5일(월)
2. 강의시간:
가)A반=08시30분~09시30분 (월~금 주5일 수업)
나)B반=16시30분~17시30분 (월~금 주5일 수업)
3. 과 정:8주 과정
4. 모집인원:각반 40명 (선착순 마감)
5. 강 사:(중화민국 연변대학교 졸업,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전임강사)
6. 강의내용:
정확한 발음, 문법, 독해력 회화능력을 배양
7. 교 재:미정
8. 수 강 료:8주 60,000원

강의실 냉방시설 완비

언어교육연구원 (접수기간:6월 15일~30일 접수 및 문의:☎961-0081~2)

강의실 냉방시설 완비